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 매거진

FoMo

Forced Mobilization

2022년 1월호

Vol.23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National Memorial Museum of Forced Mobilization under Japanese Occupation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매거진
2022년 1월호 VOL. 23

FoMo

Forced Mobilization

신년대담

03 김용덕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을 만나다

이슈

04 끝나지 않은 그녀와 그녀들의 이야기

06 '99엔을 받아라!'

재단은 지금

08 치열한 토론과 업무역량 강화의 장

역사관 소식

09 올해도 우리는 이렇게, 바쁘다? 바빠!

10 우당탕탕 신입학예사의 역사관 체험기 - 업무편 신입직원 추의 고군분투 60일

12 우당탕탕 신입학예사의 역사관 체험기 - 시설편 신입직원 추 & 고디 역사관 탐방

함께 읽어요 - 강제동원 관련 도서

14 지상으로 올라오지 못한 기억 '언더그라운드'

소장 유물 소개

16 사할린 강제동원

유관기관 소개

18 사할린동포, 우리가 앞장서서 알린다

19 역사관에서 만나는 사할린동포 이야기

20 76년만에 세워진 한국인 위령비

애독자 엽서 소개

21 2022년 더 유익한 정보로 가득 채운 '포모'가 되겠습니다

역사관 사용설명서

22 '지워지지 않을 역사의 유산' 展

23 역사관을 소개합니다

포모는 소식지와 이름이 같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캐릭터로 강제동원의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평화의 상징 비둘기입니다.

일러두기 FOMO는 일제의 강제동원을 뜻하는 Forced Mobilization의 약칭입니다. 일제강제동원이란,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침략전쟁을 벌이기 위해 자행한 인적·물적 동원 및 자금통제를 말합니다. 강제동원은 잊어서도, 잊혀져서도 안될 인권유린의 뼈아픈 역사입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매거진

발행일 2021년 12월 24일 통권 제23호 **발행인** 김용덕 | **편집인** 박철규 | **편집위원** 김영진, 박수란, 박태성, 안덕자, 정두나, 조미숙 | **기획·편집** 김민균 | **디자인** ㈜광장에이앤씨 051-583-8722 | **주소**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 (대연동 산 204-1) **T** 051-629-8600 **F** 051-629-8619 **홈페이지** http://museum.fomo.or.kr

피해자와 유족들의 실질적 혜택을 위한 노력

김용덕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을 만나다



김 용 덕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Q1. 일제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강제동원'은 문자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역에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는 1931년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금하고 있는 것이며, 일본 또한 가입한 조약입니다. 보상도 없이 노예 같은 노동에 종사시킨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밝혀야 할 역사적 사실입니다.

일본은 당시 한반도가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시기 국민총동원령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지만 강제노동 현장에 차별적 처우를 받았던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별조건 아래에서 잔인하게 취급받으며 강제노역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본인들뿐 아니라 그 가족, 나아가 한국인의 가슴 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를 어두운 역사(dark history)로 기억하고 인권회복과 평화 성취를 위하여 역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지금도 희생 당하고 있는 세계 도처 사례들과의 연계를 통해 그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Q2. 현재 일본정부의 강제동원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제동원에 대한 '국가적 사죄'입니다. 국가적 사죄에 따른 차후의 문제는 피해자나 유족들도 다른 차원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Q3. 2022년 새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 국민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성을 띤 객관적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하고 연구관리능력도 고양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생존 피해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구술채록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기금확보에 진력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 | 재단 **이기병**

영화 '허스토리' 실존인물
김문숙 부산정대협 이사장 별세

끝나지 않은 그녀와 그녀들의 이야기



김문숙 정신대문제대책 부산협의회 이사장(출처 부산일보)

"더러운 사람", "할마시들이 쪽팔린 줄 알아야지". 여기서 지칭하는 '더러운 사람'과 '할마시'들은 위안소에서 말 못 할 아픔을 겪었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분들이다. 불과 30년 전, 그분들에 대한 시대의 인식은 부끄럽게도 위 대사와 같았고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원해서 간 이들로 치부될 뿐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이분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알리는 데 발 벗고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나선 이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영화 '허스토리' 문정숙 사장역의 모티브가 되었던 인물인 김문숙 정신대문제대책 부산협의회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행사를 운영하며 여성 인권운동에 힘쓰던 그는 부산으로 기생관광을 오는 일본인들을 접한 것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 이후 정신대문제대책 부산협의회를 설립하고 정신대 신고 전화를 설치하였다. 나아가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은 무려 1992년부터 1998년까지 2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재판은 시모노세키(하관, 下關)와 부산을 오갔다고 해서 '관부재판'이라고도 한다. 1990년대 후반 당시 동남아 11개국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재판 소송이 진행되었

는데, 관부재판은 유일하게 일부 승소를 거두고 보상 판결을 받아냈다. 일본 사법부가 위안부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근로정신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것과 일본의 공식사죄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결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다. 게다가 2001년 일본 정부의 항소로 열린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서 패소했으며 2003년에는 대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면서 패소가 최종 확정되었다.

김문숙 이사장은 재판에 그치지 않고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2004년 사재 1억을 털어 부산 수영구에 '민족과여성역사관'을 설립했다. 영화 '허스토리'를 보면 배우 김희애가 맡은 정숙은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을 아예 위안부·정신대 사무소로 활용하고 사비로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오가는 경비 등을 기꺼이 지불한다. 그리고 원고인 할머니들의 대리인으로서 통역을 자청하며 그분들의 손, 발, 눈, 입이 되어준다. 한 인터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왜 이렇게까지 헌신하느냐"는 질문에 "보람 있잖아"라고 짧게 답했다고 한다. 영화처럼 자신의 그 긴 시간과 돈을 온전히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는 데 헌신한 사람의 소감으로서는 아주 간결하고 담담하게 느껴진다.

영화 속의 위안부 할머니들은 당신들의 잘못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평생 잊지 못할 고통의 울부짖음을 밖으로 꺼내놓지 못한다. 배우 김해숙이 맡은 배정길 할머니는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위안부였음을 밝힌다. 그 아픈 과거가 당신의 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들의 무지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영화 '허스토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하는 영화다. 김문숙 이사장과 그녀와 함께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스토리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영화 시청뿐만 아니라 '민족과여성역사관'에 방문해 보길 권한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시선이 올곧게 향하고 있는지도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위안부 문제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 문제가 인류 보편적, 인권적 차원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김문숙 이사장처럼 앞장서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 | 역사관 **추경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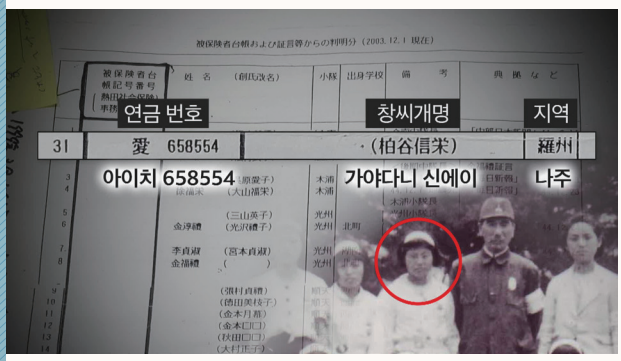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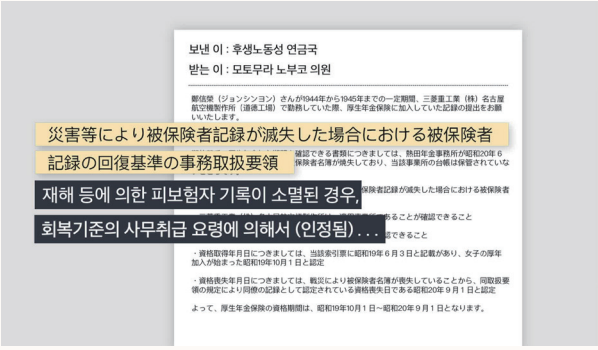
영화'허스토리'(출처 네이버영화)

끝없는 강제동원 은폐를 밝혀내는 지난한 싸움,

'99엔을 받아라!'



정신영 할머니 후생연금 가입내역 (출처 KBS)



정신영 할머니 후생연금 가입내역 문의 결과 (출처 KBS)

2009년 강제동원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게 일본 정부가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지급한 돈은 고작 99엔이다. 강제동원 당시 강제로 급여에서 떼인 돈임에도 물가상승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1,000원 남짓의 돈을 지급한 것이다. 치욕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99엔은 후생연금에 가입했다는 증거이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강제동원되었다는 것과 가입-탈퇴의 과정 자체가 강제동원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이 입을 닫고 있는 동안 오늘도 제2, 제3의 양금덕 할머니가 스스로 그 증거를 찾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양금덕 할머니처럼 99엔을 받아낸 것은 아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같은 날 끌려가 같은 곳에서 일하고, 같은 날 귀국한 정신영 할머니는 아직도 99엔을 받아내기 위해 싸우고 있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돕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지원회. 지원회는 포모에 소개되기도 했다. 포모19호 20페이지 참조)은 2021년 3월 일본연금기구에 정신영 할머니를 포함한 강제동원 피해자 11명의 후생연금 기록 조회를 요청했다. 정신영 할머니의 경우 과거 지원회가 일본연금기구의 내부자료를 열람했을 때 기록을 확인했지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단체사진 - 미쓰비시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강제동원된 박순적과 동료들의 사진이다

만, 일본연금기구는 5월 해당 "가입기록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지원회는 모토무라 노부코 일본 중의원의 도움을 받아 일본연금기구의 상급기관인 후생노동성에 직접 조회를 요청했다. 후생노동성의 대답은 "전쟁 중 기록이 사라졌지만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었다. 국회의원의 압력 때문인지 '기록이 없다'던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정 할머니의 후생연금 가입 사실을 인정받았지만, 일본연금기구는 탈퇴수당을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라며 피해자의 생존확인 절차를 거치라고 주장한다. 과거 지원회 등 피해자들의 일본 측 대리인의 계좌로 탈퇴수당을 송금해 왔으나 돌연 규정을 바꾼 것이다. 거동조차 힘든 노인들에게 팬데믹 상황을 뚫고 직접 99엔을 받으러 일본으로 오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탈퇴수당 지급을 늦추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일 양국에서 지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계시지만 후생연금 기록을 조회하고 탈퇴수당을 신청하고, 수령하기까지 이 어려운 과정을 고령의 피해자들이 진행하기는 너무 힘든 일이다. 우리 정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부분이다.

글 | 역사관 **김민균**

매주 브라운 백 미팅(Brown Bag Meeting) 진행

치열한 토론과 업무역량 강화의 장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매주 2회,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브라운 백 미팅(Brown Bag Meeting)을 진행하고 있다. 브라운 백 미팅은 점심 식사를 곁들이면서 편하고 부담 없이 하는 토론으로, 점심으로 제공되는 샌드위치 봉투가 갈색인 데에서 유래됐다.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최근 많이 활용되는 토론 형식이다. 이사장부터 신입직원까지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재단 현행 사업과 업무에 대해 이야기한다.

업무담당자의 발제 이후 질문과 답변, 자유 발언의 과정을 통해 각자의 업무 내용을 소개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한다. 특히 신규직원들에게는 업무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더불어 매주 두 번, 맛있는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건 덤이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앞으로의 사업 진행을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발제를 위해 준비한 보고서 자체가 인수인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미팅에서는 2개의 주제로 진행되어 구술채록, 진상조사, 학술행사, 기금 모집·관리, 유해조사, 위패관리, 유족 복지 지원 사업에 관해 함께 토의했다. 새해에도 브라운 백 미팅을 통해 재단의 사업과 미래를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화하며 이를 통해 업무 능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글 | 재단 **안경준** 사진 | 재단 **이재은**

올해도 우리는 이렇게, 바쁘다? 바빠!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2022년 주요 사업

1 '알참'을 꽉꽉 채운 전시 기획

- **강제동원과 일제강점기 침탈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
  - · 기간 : 2022년 상·하반기
  - · 소개 : 강제동원과 일제강점기 침탈에 관한 전시
- **독립기념관과 협업을 통한 기획전시 개최**
  - · 명칭 : 이달의 독립운동가
  - · 기간 : 2022년 상·하반기
  - · 소개 : 매달 선정된 독립운동가 주제 전시
- **여름방학 기간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기획전시**

2 아이들의, 아이들에 의한, 아이들을 위한 곳으로 거듭나기

- **제1회 인형극 공모전**
  - · 기간 : 2022년 상반기
  - · 소개 : 강제동원을 주제로한 인형극 공모
- **인형극 공모전 수상작 활용한 프로그램**
  - · 기간 : 2022년 하반기
  - · 소개 : 제1회 인형극 공모전 수상작 상연

3 부산을 한 눈에 즐기는 인문학 향연

- **강제동원을 주제로 한 시민강좌 16강**
-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특강 5강**
  - · 기간 : 2022년 상·하반기

4 유물의 진가를 보여주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 **소장유물 원문 해제 (解題)**
  - · 기간 : 2022년 상반기
  - · 소개 : 소장유물의 대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원문 해제(解題)와 디지털화
- **수장시설 종합유해생물관리** (IPM:Integrated Pest Management)
  - · 기간 : 2022년 상·하반기
  - · 소개 : 유해생물에 의한 유물 훼손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과 소독
- **상설전시실 내진보강 공사**
  - · 기간 : 2022년 상반기
  - · 소개 : 지진에 대비한 상설전시실 내 블록벽체 보강

글 |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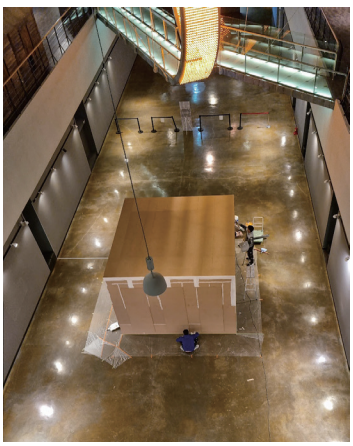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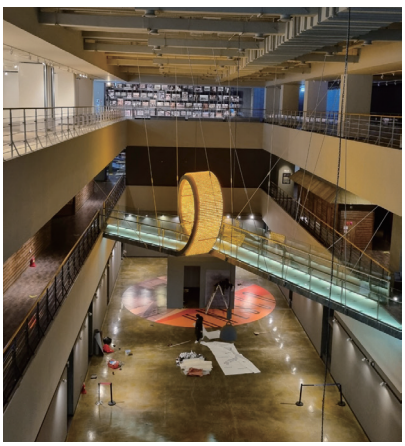
우당탕탕 신입 학예사의 체험기 - 업무편

신입직원 추의 고군분투 60일

2021년 11월 갓 임용된 신입 학예사의 직업 체험기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역사관의 뒷이야기들을 살펴보자.
이제 막 학예사가 된 초짜배기 신입은 전시와 소식지, 어린이체험관이라는 큰 미션을 부여받았다.
'미션 파서블' 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전시준비는 끝이 없다

역사관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왜곡과 그 대응'이라는 주제로 겨울방학 특별전시를 실시한다. 본 전시를 위해 신입은 먼저 패널에 들어갈 원고를 작성해야 했다. 수많은 기사와 한국 유네스코의 자료, 여러 연구 결과들을 하염없이 찾고 읽었다. 팀장님의 도움으로 자료 수집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지만 글을 쓰는 것은 막막하기 그지없었다. "원고? 그거 어떻게 쓰는건데?"라는 반복된 질문을 되뇌며 불안감을 안고 키보드에 손을 얹기를 며칠. 겨우 원고 마무리는 되어 갔으나 찜찜한 기분은 도저히 가시지 않았다. 삽입 사진을 찾는 일도 복잡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사진을 받아 진행하였는데, 수차례의 전화와 이메일, 기안이 올라가서야 마무리되었다. 이제 전시물 설치만 되면 끝이겠거니 하고 방심했던 탓일까. 맵핑할 영상물을 설치하던 날, 기어코 사고를 쳐버리고 말았다. 팀장님과 전시 관계자분의 눈치 틈에 등줄기 사이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어김없이 이 수습도 팀장님 몫이었다. 경험해 보니 전시 준비는 끝이 없다. 더불어 내 마음의 편치 않음도 끝이 없다. 하지만 전시는 기대해도 좋다.


전시 준비 과정

소식지라는 늪

신입이 처음 받아들게 된 소식지 업무는 이미 원고가 다 쓰여진 교정본이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벼운 마음으로 빨간펜을 손에 들고 교정에 들어갔다. 편집 간사로 일한 경험이 있었기에 교정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덜렁대는 성격 탓인지 읽을 때마다 교정해야 할 것들이 화수분처럼 등장하였다. 교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소식지는 편집위원회라는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편집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감사한 충고는 소식지를 더욱 풍성하고 깔끔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아, 이제 끝인가' 했더니 곧바로 다음 소식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만 했다. 목차 회의를 하고 역할을 분담한 뒤 맡은 분량의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완성될 23호, 눈이 즐거운 소식지가 되기를 소망한다.

평화롭던 근무에 긴장감을 선물하는 어린이체험관

박물관의 교육과 체험전시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요즘, 역사관의 어린이체험관은 자랑거리이자 고민거리다. 역사관의 특성상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아이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왜곡되지 않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심사숙고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린이체험관에는 관부연락선 모형의 놀이시설과 군함도 모형의 미로가 설치되어 있다.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아픈 역사를 조금이나마 공감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것이 신입의 목표가 되었다.

글 | 역사관 **추경아**



어린이체험관 부설 도서관 '다독다독'

우당탕탕 신입 학예사의 체험기 - 시설편

신입직원 추&고디와 함께하는 역사관 탐방

신입직원인 추와 고디가 홈페이지에도 없는 색다른 공간을 소개하고
꿀팁이 되는 정보를 알려준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어보자.

01

역사관은 남구 전경이 훤히 보이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망이 참 좋아요!
하지만 매일같이 올라도 오르막길은 적응되지 않아요.





그럴 땐 지하철 2호선 못골역에 내린 후 남구9
마을버스를 타면 돼요! 10분이면 역사관에 도착한답니다!
하지만 남구9 마을버스는 15~20분마다 오니까
시간 확인을 잘해야만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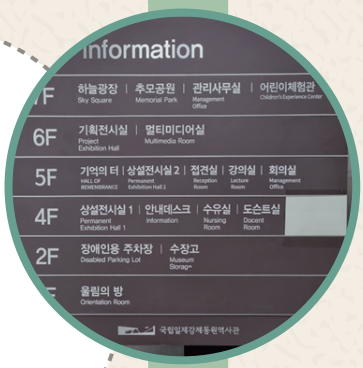


▸▸▸

02

자, 이제 관람을 시작해볼까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신기하게도 역사관에는 3층이 없어요!
(혹시 엘리베이터에서 3층 버튼을 본다면
얼른 내리세요! 귀신이닷!)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3층이 필로티 구조로만 되어 있어 그런 것이랍니다^^
지금부터 추와 고디가 역사관 홈페이지와 리플렛에
안내되지 않은 특별한 장소를 소개할게요!

03



첫 번째 장소는 역사관 5층에 위치한 '기억의 터'에요.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위패를 모신 곳인데, 현재는 무려
1332분의 위패가 있답니다. 참 많은 분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희생됐다는 사실이 마음 아파요.



이곳에선 마음이 숙연해져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이 위패들은 유골 한 점 찾지 못한 분들을 위한 것들이래요.

04



두 번째 장소는 제가 소개할게요! 바로 '진혼의
다리'에요. 역시 역사관 5층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수많은 조명이
불을 밝히고 있는 설치물이에요.





혹시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진혼의 다리를 건널 때
조심하세요!

05



그럼 마지막으로 전시 관람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기념사진을 찍고 싶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역사관 4층부터 6층까지 피해자 사진으로 가득 채운 이곳!
그중에서도 특히 6층 엘리베이터 왼편을 추천하고 싶어요.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갖고 촬영한다면 의미 있는
인생샷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글·사진 | 역사관 **추경아, 오다슬**

지상으로 올라오지 못한 기억 “언더그라운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억압과 죽음의 공간이 된 언더그라운드(지하). 도서 ‘언더그라운드’는 서울·부산·시모노세키·오키나와 등의 국내외 땅속에 남겨진 이야기를 찾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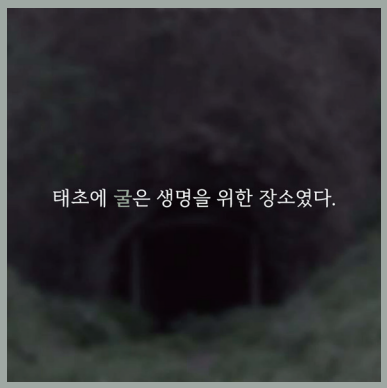
특히 부산 부분에서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53p~73p) 일제하 일본까지의 최단거리로 수많은 언더그라운드를 향하는 출발점이 된 부산. 그리고 언더그라운드로 향한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잠든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책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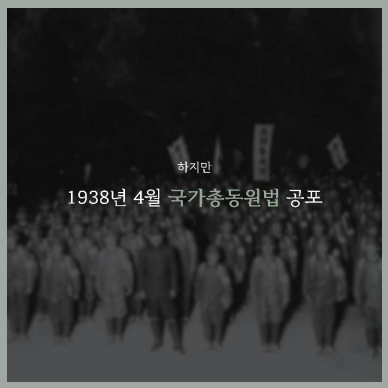
본 도서에는 역사관에서 제공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관은 강제동원의 실상을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언론사 등에 소장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매체에서 역사관과 소장유물을 만날 수 있을지도 기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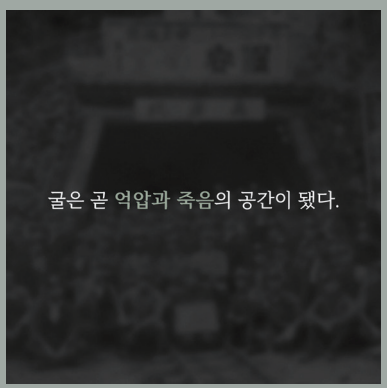
제작: 역사관 오다슬
출처: 역사관 인스타그램(QR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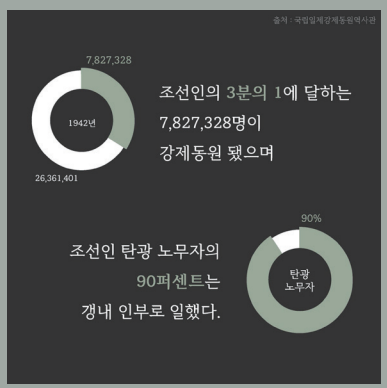
글 | 역사관 **오다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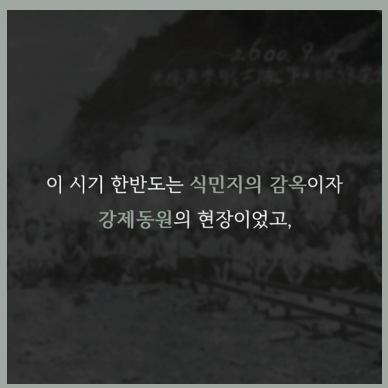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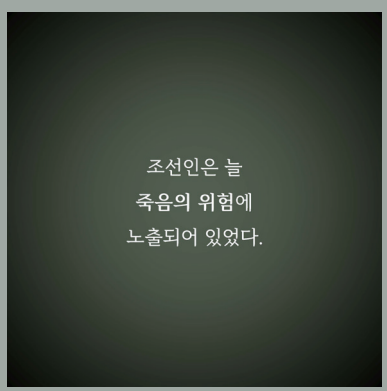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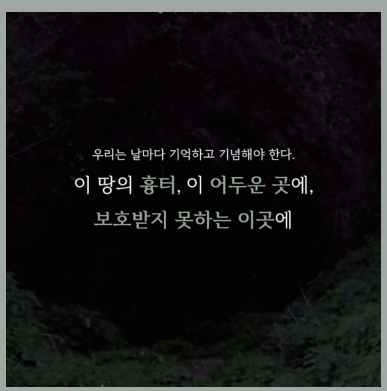
















"강제로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살기 위해 땅 아래에 내려갔으나 지상으로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
어둠 속에서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다 죽어간 사람들 …
역사에서 언더그라운드에 매장된
이름 없는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 나선다"

혹한의 땅에 쌓인 원한

사할린 강제동원

일제는 태평양 방어의 전략적 거점인 사할린의 군사시설 공사와 전쟁 물자 원료생산 현장에 조선인을 강제동원해 배치했다. 조선인들은 혹한의 기후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하자 사할린은 소련의 영토로 귀속됐고, 강제동원 피해자를 포함한 조선인들은 귀환하지 못한 채 남게 됐다.

다행히 1990년부터 인도적 차원의 귀국사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30년만인 2020년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정됐다. 마침내 지난 2021년 11월 28일 법령에 따른 최초의 사할린동포 귀국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를 기념하여 이번 호에서는 사할린 일대의 강제동원 관련 유물을 모아 보았다.

1. 김종학 등 비다 광업소 종업원 35명 결의형제 일동 단체 사진 (①)

사할린 오토마리(大泊)에 있는 이시하라(石原)산업 주식회사 비다(美田)광업소의 탄광으로 동원된 노동자들의 단체사진으로, 김종학은 1915년 5월 21일생이며, 충북 청주 출신이다. 사진은 아들 김한경이 기증했다.

2. 윤윤덕 사진, 메모와 편지 (②~⑤)

윤윤덕은 충남 천안 출신이며, 1941년경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된 후 우글레고르스크(Uglegorsk)에 있는 다이헤이(大平)탄광 및 레소고르스크(Lesogorsk) 소재 도요하타(豊畑) 및 니시사쿠탄(西栅丹)탄광 등에서 노무자로 생활했다. 해방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사할린에서 사망했다.

성명, 창씨명, 출신지, 강제동원지 및 동원형태 등의 인적사항을 적은 메모와 함께 편지 4매가 남아있다. 편지는 1974년 8월 23일 윤자덕(윤권호의 개명 전 이름)에게 작성한 것으로, 소련의 치하에서 직접 수신할 수 없었기에 박노학 사할린귀환재일한국인회장을 통해 주고받았다.

3. 화태청 발급 기류장 (⑥)

송응진 가족이 사할린 브이코프(Bykov)에 있는 사할린인조석유주식회사의 나이부치(內淵)탄광에 채탄부로 동원돼 거주하고 있음을 기록한 발급서류다. 서류는 1944년 9월 20일 작성됐으며 호적처럼 세대주·처·아들과 두 딸의 생년 등 인적사항을 기재했다.

4. 협화회회원장 (⑦, ⑧)

이두섭이 1943년 1월 25일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된 후 토공으로 근무할 때 사할린 소재 협화회* 도요하라(豊原) 지회로부터 받은 회원 수첩이다. 1944년 8월 15일 작성됐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면: 이름, 창씨명, 생년월일, 출생지 등
- 3면: 현주소, 사할린 도착 날짜 등
- 4면: 사진 부착, 촬영일
- 5면: 직업, 취직일, 근무 장소 등

* 협화회: 사할린 내 조선인을 관리하기 위해 일제가 만든 조직

5. 도로탄광 인감표 (⑨)

김영시는 1942년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사할린 샤흐토르스크(Шахтёрск)에 있는 남사할린탄광철도주식회사의 도로(塔路)탄광에서 노무자로 근무하다가, 1944년 나가사키현 소재 미쓰비시광업주식회사의 하시마(端島) 등으로 전환 배치됐다. 전후 사할린에 억류되자 다시 도로(塔路)탄광에서 근무했는데, 해당 문서는 이때 작성된 것이다. 문서의 앞면에는 인감란·도장날인 등이 있으며, 뒷면은 세대주·관계·영수인 등의 사항이 인쇄되어 있다.

* 화태(樺太)는 사할린의 한자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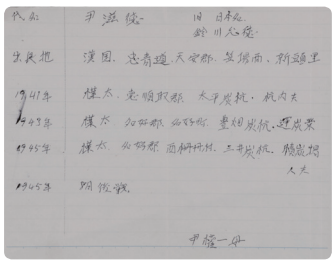
김영시 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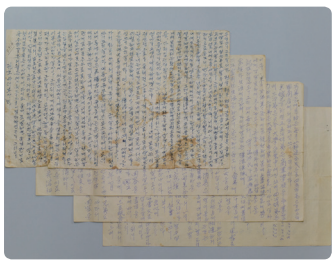
1942년 사할린 소재 도로(塔路)탄광에 강제동원 후 노무등록
1944년 나가사키 소재 하시마(端島) 등에 전환배치
1945년 가족과 함께 사할린에 억류, 11월 1일 도로(塔路)탄광에 재등록
1965년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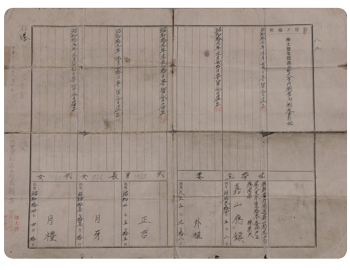
① 
피해자 김종학 기증

② 
피해자 윤윤덕 기증 사진

③ 
피해자 윤윤덕 기증 사진

④ 
피해자 윤윤덕 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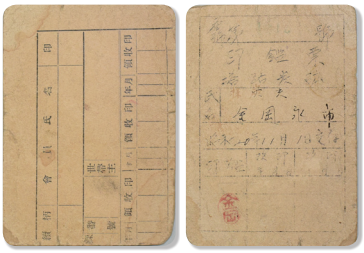
⑤ 
피해자 윤윤덕 편지

⑥ 
화태청 발급 기류장

⑦ 
협화회회원장

⑧ 

협화회회원장

⑨ 
도로탄광 인감표 (앞, 뒤)

글 | 역사관 **오다슬**

사할린동포, 우리가 앞장서서 알린다

재외동포 인권 문제 활동의 중심 '지구촌동포연대'

지난 2020년 5월 26일, 법률 제17305호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해당 법률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에 대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2021년 2월 12일에는 외교부와 관계부처의 주최로 영주 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설명회도 열리는 등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사할린동포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의 단체 활동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기관의 명칭

정식명칭 : 지구촌동포연대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약　　칭 : KIN

• 지구촌동포연대가 하는 일

남북 재외동포간 교류협력 사업
재외동포 권익옹호 활동
재외동포 관련 근현대사 역사 청산 활동
재외동포(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연구 및 대안 개발
재외동포 교육·문화 관련 지원협력 사업 및
국제연대 사업

• 지구촌동포연대의 최근 성과

< 지구촌동포연대 포럼 >
주　제 : 사할린 마카로프 지역 한인 역사에 대한 이해
날　짜 : 2021년 11월 22일

<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2 제작 >
내　용 : 일상생활을 음력으로 지내는 사할린동포 위한 달력 제작 행사

• 지구촌동포연대가 있는 곳

대한민국 서울

• 지구촌동포연대의 사람들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

글 | 역사관 **장민성**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상설전시실 사할린동포 코너

역사관에서 만나는 사할린동포 이야기



01



02

01 윤윤덕 등이 사할린 소재 도요하타 작업장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다.

02 박노학 수신 편지. 박노학이 일본에 있을 상시 사할린에 거주하던 억류 동포들과 주고 받은 편지다. 당시 소련과 수교가 없던 한국의 피해자 가족들은 박노학을 통해 피해자들과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었다. 박노학은 사할린억류귀환자동맹을 결성해 사할린에 억류된 동포들의 귀환을 돕는데 헌신했다.

사할린의 조선인들은 언어의 장벽과 외로움, 생활고 등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고, 소련이나 북한 국적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했다. 일본으로 돌아간 조선인들은 1958년, 도쿄에서 '화태 억류 귀환자 동맹'을 결성해 사할린동포의 귀환운동을 시작했다. 박노학이 중심이 된 동맹은 국교가 없던 한국과 소련 간에 서신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절망에 빠져있던 사할린동포에게 한줄기 빛이 됐다. 전달된 서신은 7천 여 명이 기록된 '화태 억류 동포 귀환 희망자 명부'의 바탕이 됐다. 서신과 명부는 현재 상설전시실에서 전시 중이다.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상설전시도록 중 -

글 | 역사관 **장민성**

나가사키 한국인원폭 희생자 위령비 제막

76년만에 세워진 한국인 위령비





01 일본 나가사키원폭조선인희생자 추모비 **02** 일본 나가사키의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출처 연합뉴스)

지난 11월 6일 일본 나가사키 평화공원에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비 제막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 여건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단장, 히라노 노부토 평화활동지원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세워진 한국인 위령비는 비극적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7만 4천여 명이 숨졌다. 일본인 다음으로 피해가 컸던 것은 조선인으로 위령비 안내문에는 "나가사키시와 주변 지역에 (조선인) 약 3만 5천 명이 거주했고, 수천 명에서 1만명으로 추정되는 우리 동포들도 목숨을 잃었다"라고 적혀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온 이주자도 있었으나 일제가 조선소 등 군수공장과 탄광으로 강제동원한 노동자들도 많았다.

이 비는 한국정부와 민단이 위령비 건립을 추진한지 27년만에 세워졌다. 재일 민단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건립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으나, 일본은 위령비를 세울 장소를 내주지 않았고 2010년 이후에는 '강제징용'이라는 문구를 트집 잡았다. 결국 '강제'라는 표현을 뺀 뒤에야 위령비가 세워질 수 있었다. 위령비 앞의 설명문에 나가사키시가 마지막까지 문제 삼았던 '강제징용'이라는 표현 대신,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본인의 의사(意思)에 반(反)하여 노동자, 군인 및 군무원으로 징용, 동원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번에 세워진 위령비로부터 걸어서 2~3분 거리에 또 하나의 원폭 희생자 추모비가 있다. 오카 마사하루 목사와 일본 시민들이 지난 1979년에 세운 '나가사키 원폭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이다. 이 비는 양심적 일본인들이 속죄의 마음으로 모금하여 세운 것으로, 오카 마사하루 목사는 나가사키 조선인 원폭 사망자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세상에 알렸다. 이 추도비에는 '강제연행 및 징용으로 중노동을 하던 중 피폭으로 사망한 조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라는 글이 적혀있다.

글 | 역사관 **김민균**

2022년 더 유익한 정보로 가득 채운 '포모'가 되겠습니다

지난 2021년 한해 많은 분들이 포모를 읽어주시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포모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많은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해방된지 70년이 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식민지배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실한 증거들을 토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강원도 춘천시 **홍영숙**

우리가 몰랐던 강제동원에대한 기사를
발굴해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더
홍보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을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차
원의 해결을 바랍니다.

경북 예천군 **인경술**

역사를 바로 알리는
기사 감사합니다. 앞으로 피해자들이 돌아가신
장소를 한군데씩 소개해 주었으면 합니다.
역사관을 방문해 벽에 붙어 있는
외삼촌 이름을 보니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께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언론에 자주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기장 **이혜정**

앞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추모공원조성과 유골수습이
필요합니다!

경남 거창군 **한영용**

앞으로 일제강점기에 대한
기사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
역사관 7층 어린이체험관이 더 커지고
재미있어지면 좋겠고,
도서관에 만화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산 남구 **김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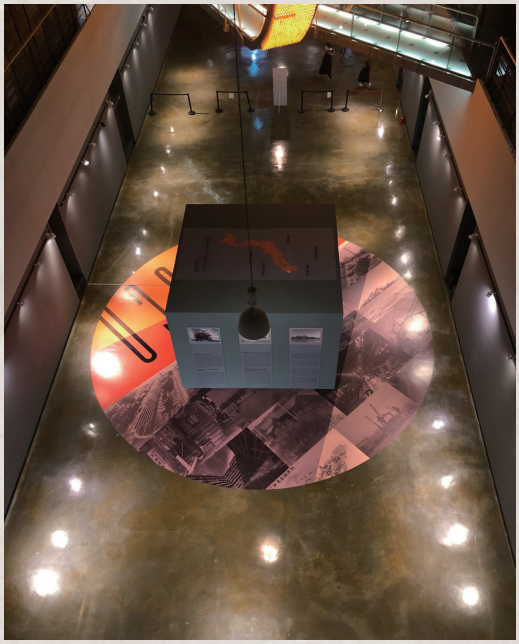
일본 근대산업시설 역사왜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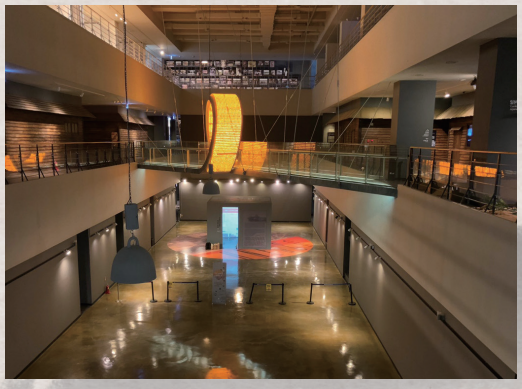
‘지워지지 않을 역사의 유산’ 展

역사관은 지난 12월 21일부터 ‘지워지지 않을 역사의 유산’展을 개최하고 있다. 겨울방학 특별전시로 2월 20일까지 역사관 4층 중앙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일본이 신청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중 조선인의 강제동원이 확인된 7곳의 실상을 밝히고,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역사 왜곡문제를 전달한다.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전시를 선보이기 위해 큐브형태로 제작했으며 ‘강제동원의 아픔과 우호를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를 담은 미디어아트를 함께 상영한다. 특히 이번 미디어아트 전시는 지난해 강제동원피해자들의 귀국선 우키시마호를 모티브로 부산 원도심 문화회복프로젝트 미디어아트 공연을 연출한 허병찬 작가가 제작을 맡아 그 깊이를 더했다.







역사관을 소개합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 (대연동 산 204-1)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 • **관람시간** : 09:30 ~17:30 (최종입장 17:00)
Tel 051 629 8600 **Fax** 051 629 8619 **홈페이지** http://museum.fomo.or.kr

역사관 시설 무료 대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관을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일부 시설을 무료로 빌려 드립니다.

· **1층** : 울림의 방 / **5층** : 회의실, 교육실, 휴게실
6층 : 휴게실
· 문의 : 051) 629-8600

자원봉사자 모집

함께 만들어 갈 역사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 : 1365 자원봉사자포털
https;//www.1365.go.kr/
· 문의 : 051) 629-8600, 8621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FoMo나 역사관에 바라는 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동봉된 엽서, 이메일(museum@fomo.or.kr), SNS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기부 팔찌)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역사관의 기록이 됩니다.

기억과 기록

땅에 묻지 마세요, 태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물건'이 우리의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대상** :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 아시아태평양전쟁 관련
  - 해방 후 조선인 전범 관련 사진, 문서, 의류, 도서 등
- **문 의 처** : ☎ 051) 629-8615

잊지 말아주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우리의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언대상** : 국내·외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 **증언방법** : 피해자를 직접 방문해 인터뷰
- **문 의 처** : ☎ 02) 721-1825

※ 피해 생존자와 유족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대연동 산 204-1)
Tel. 051 629 8600 **Fax.** 051 629 8619 **홈페이지** http://museum.fomo.or.kr